

매주 토요일 시민문화체험특화프로그램 '아트 오아시스' 진행

광주일보 문화예술 매거진 10월호

# '10월의 어느 멋진 날' 전일빌딩245로

전시·공연·인문학 토크 등 풍성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서 풍성한 문화체험을 즐기다.

무르익어 가는 가을의 오후, 계절의 낭만과 정취를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문화프로그램이 찾아온다.

광주시가 주관하는 전일빌딩245 시민문화체험특화 프로그램 '아트 오아시스'가 그중. 10월 매주 토요일(오후 1시~6시) 북촌문화플랫폼 전일빌딩245에서 펼쳐지는 아트 오아시스는 미디어아트 전시, 융복합 공연, 초대전, 버스킹, 브랜드 공연, 플라마켓, 인문학 토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미디어아트 전시(6일~30일)는 이이남 작가의 영상 '만화·병풍'이 VOC라운지(8층)에서 열린다. 작품은 미디어아트 조형언어로 전통미술을 현대화한 것이다.

아울러 디지털 기술을 통해 공간의 입체를 극대화한 감동협동조합의 메타버스 '전일빌딩 아트 오아시스'도 같은 기간 진행된다.

공연, 미디어아트, 퍼포먼스가 결합된 다원 프로그램도 눈길을 끈다. 일명 '융복합 공연-Over Media'. 임용현과 구남클렉티브(김영남, 구혜영)의 융복합 공연 '미디어 텔레파시'가 7일 오후 6시 전일마루에서 시민들을 만난다. 미디어가 사라진 미래를 배경으로 미래 인류 3인이 지구인들을 향해 공연을 펼친다는 내용이다.

전일빌딩을 예술적 감성으로 물들이는 전시도 준비돼 있다. 일명 '전일245전'. 유지원 작가의 '남김의 미학'이 오는 18일까지 1층에서 펼쳐진다. 효율과 성취로 대변되는 오늘의 시대 '남김'의 의미를 깊이 숙고해 볼 수 있는 시간이다.

오는 21일부터는 서영실 작가의 초대전 '파라다이스 아일랜드'(다음달 19일까지)가 진행된다. 주제가 말해 주듯 서 작가는 사라져가는 구도심과 한반도의 동물들을 탐색하며 문명의 이기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질문하고 탐색한다.

15인의 인도 기획자와 작가들의 프로젝트 '풍경 속의 모습'(14일~28일)도 3층 시민갤러리에서 만날 수 있다.



9월에 진행된 플라마켓 '덕질상점' 장면.

(광주시 제공)

가을의 낭만을 만끽할 수 있는 브랜드 공연도 마련돼 있다. '바라는 바다'는 '빌딩 속 오페라 이야기'를 주제로 한 OM오페라앙상블의 스토리텔링 오페라 공연이다. 이번 작품은 원작의 감동과 느낌을 좀 더 쉽게 이해하도록 해설이 있는 오페라로 진행된다.

무성영화의 두 거장 버스터 키튼과 찰리 채플린의 영화도 상영된다. 7일에는 버스터 키튼의 '더 보트', 21일에는 찰리 채플린의 '개인 삶'이 관객들을 찾아온다. 영화 상영과 아울러 즉흥 연주 공연팀 S.O.M의 라이브 음악을 즐길 수 있다.

버스킹 스타일의 자유로운 상설공연도 펼쳐진다. 2·3·4주 토요일 펼쳐지는 '버스킹 오아시스'는 클래식 연주, 인디밴드 공연, 포크 공연, 재즈 공연 등이 예정돼 있다.

광주와 서울 단체의 지역교류음악회도 펼쳐진다. 국악 POP을 지향하는 광주의 올라와 민요와 K-POP을 결합한 서울의 탈이 무대에 올라 퓨전을 매개로 콜라보를 선사한다.

아빠들이 가족들을 위해 디저트를 준비하는 일일 쿠키도 눈길을 끈다. '오늘은 아빠가 제빵왕'(28일)에서는 '할리윈 호박 파이 만들기'를 진행한다.

11개의 로컬 셀러들의 인기 아이템을 만나는 '플리

마켓-덕질 상점'에서는 할리윈 컨셉으로 꾸며지며 이벤트도 예정돼 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는 명제답게 북토크와 강연도 빼놓을 수 없다. 인문학 토크 '책 읽어주는 여자·남자'(14일)에서는 독립서점 책과 생활이 추천하는 문학, 인문학, 에세이 등 도서를 함께 읽으며 삶과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융복합 콘텐츠 강연 '전일245 클래스'에서는 광주글로벌게임센터 입주기업의 게임에 대한 기획 특강이 진행됐다.

문화예술체험프로그램도 풍성하다. '액션! 아트 놀이터'에서는 패브릭 포스터 만들기, 가죽 키링 만들기 등이 매주 토요일 진행되며 '명량가족아트놀이터 하하호호'에서는 스톱 모션 애니메이션 교육 등이 펼쳐진다.

정재경 담당자는 "10월 매주 토요일 진행되는 이번 아트 오아시스에서는 전시, 공연, 체험, 플라마켓, 북토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며 "각기 취향에 따라 문화체험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에서 확인 가능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연방



### 새로운 K-문화 '가을, 국악의 향연 속으로' '맛과 멋 함께, 남도 유람' 보배의 섬 '진도'

깊어가는 가을, 국악의 향기가 짙은 남도로 떠날 시간이다. 광주일보가 발행하는 문화예술매거진 '연방' 10월호가 다양한 문화소식을 싣고 찾아왔다.

이번호 특집은 '가을, 국악의 향연 속으로'다. '고리타분하고 지루한 음악',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 듣는 음악'으로 여겨지던 국악(國樂)에 대한 편견이 깨지고 있다. 전통을 지키면서도 함께 즐기고 신명과 흥을 불어넣으며 새로운 K-문화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남도 전통문화 예술의 산실'(産室)인 국립남도국악원과 새로운 국악대중화 바람을 일으키는 국악밴드까지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국악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본다.

예향 초대석 주인공은 '맑은 사람을 위한 책의 집'을 운영하는 고티연구자 전영애다. 독문학자 전영애 교수는 퇴임 이후 경기도 여주시 산자락에 '여백서원'을 개원해 '고테 전집' 번역과 함께 학문공동체를 일구고 있다. '3인분 노비'를 자처하며 낮에는 서원을 돌보고 밤에는 번역을 한다. 10월말 고티를 모델로 자기성찰의 공간인 '젊은 고티의 집'을 연다는 전 교수를 만나본다.

'맛과 멋 함께, 남도 유람'이 찾아간 곳은 '웰빙 섬' 진도다. 진도는 천혜의 자연경관과 역사·문화예술자원을 품고 있는 '보배의 섬'이자 국가 지정 무형문화재 4건을 보유한 '대한민국 민속문화예술특구'이다. '다도해국립공원 1호 명품마을' 판매도와 '접도 웰빙길', '세방낙조', '송가인공원' 등은 여행자들에게 '섬'과 '힐링'을

안겨준다. 전복과 톳, 감정살과 해풍속 등 자연이 주는 특산물도 넘쳐난다.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벨트 거점'으로 도약하는 진도의 가을을 찾아 나선다.

'도시를 바꾼 아트투어리즘' 기획물이 새롭게 시작된다. 바야흐로 국가보다는 도시의 경쟁력이 강조되고 있는 시대다. 특히 한 도시의 문화적 총체를 보여주는 미술 인프라와 아트페어, 비엔날레 등은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관광산업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회색빛 도시를 화려한 관광도시로 살려 낸 국내외 선진도시들의 생생한 미술현장을 소개한다.

세계로 떠나는 문화기행은 도시 전체가 '살아있는 박물관'으로 불리는 이탈리아 로마로 향한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처럼 로마는 유럽 여행의 시작과 끝으로 불린다. 콜로세움과 트레비분수, 스페인광장, 판테온, 포로 로마노, 캄피돌리오, 나보나 광장, 바티칸시국까지 어느 것 하나 거를 수 없다.

'新冠남관광역지도'는 미식관광의 메카로 떠오른 전남의 음식 문화와 빵 마니아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전남 빵지순례지를 안내한다. '꼭포, 어디까지 가봤니?'는 오는 13일부터 개최되는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와 역사·문화예술자원을 품고 있는 '보배의 섬'이자 국가 지정 무형문화재 4건을 보유한 '대한민국 민속문화예술특구'이다. '다도해국립공원 1호 명품마을' 판매도와 '접도 웰빙길', '세방낙조', '송가인공원' 등은 여행자들에게 '섬'과 '힐링'을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 '베를린 슈타츠키펠레 현악 4중주단'과 함께하는 이견음악회

17일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깊어가는 가을 독일 클래식과 컨템포러리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연주회가 열린다.

건축자재 전문기업 이견(대표 박승준, 안기명)은 제 34회 '이견(EAGON) 음악회'를 오는 17일(오후 7시 30분)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펼친다. 이에 앞서 광주일보사는 애독자들에게 음악회 초대권을 무료 배포한다.

이견 음악회는 지역 문화메세나 운동을 실천하기 위해 1990년부터 이견 창조 등 5개 계열사가 34년째 진행하고 있는 클래식 연주회다.

올해는 음악회 34주년을 맞아 '베를린 슈타츠키펠레 현악 4중주단'을 초청해 클래식 선율을 들려준다는 계획이다. 베를린 슈타츠키펠레 현악 4중주단은 450년 전통의 독일 클래식 악단 명가 '베를린 슈타츠키펠레 오케스트라'의 현악기 파트 수석 연주자들로 구성돼 있다. 무대에서는 드뷔시의 '현악 4중주 G단조', 하이든의 '현악 4중주 F단조', 슈베르트 '현악 5중주 C장조' 등이 울려 퍼질 예정이다.

한편 공연은 17일 광주 외에도 13일 서울 롯데콘서트홀, 15일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19일 대구 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 21일 부산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22일 인천 아트센터 인천콘서트홀에서 순차적으로 펼쳐진다.



베를린 슈타츠키펠레 현악 4중주단.

(이견음악회 제공)

초대권은 4일 오전 10시부터 광주일보 10층 문화사업부에서 선착순 배부한다. 1인 2매 기준으로 총 100

명에게 무료 배포. 초대권을 지참해 공연 시작 1시간 전부터 대극장 로비에서 지정 좌석표로 직접 교환하면 된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김중 전 광주문인협회장 '박용철' 강연...재조명 필요

'떠나는 배'의 시인 광주 출신 용아 박용철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중 전 광주문인협회 회장은 용아 박용철에 대한 한국문학사에서의 재조명이 필요하다고 최근 밝혔다.

김중 회장은 지난 25일 광주서구문화원이 주관한 2023문화유산아카데미 '용아 박용철 뉘아보기'라는 주제 강연에서 "광주 광산구 출신의 용아 박용철은 시인이자 문학평론가, 번역가로 활동했지만 본래 문학과는 애초에 관계가 먼 사람이었다"며 "서울과 일본을 오가며 신식 교육을 받은

그는 수리와 어학에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엘리트였다"고 말했다.

또한 김 회장은 박용철은 프로문학에 영향을 받았지만 순수시운동과 함께 해외문학을 번역, 국내에 소개하는 등 작가들의 문학적 역량을 키우는 데 노력했다고 언급했다.

박용철이 일본 유학 중 김영랑을 만나면서 문학도의 길을 걷게 되는데, 박용철의 문학적 재능과 감성을 알아본 김영랑이 그를 문학의 길로 이끌었다는 것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40

1982 - 2022

국제보청기 40주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Since 1982

#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